

農村地域내 老人單獨家口の 住居環境 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A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Rural Areas

최 명 규*
Choi, Myung-Kyu

Abstract

According 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in rural areas, Korea will be facing a serious elderly problem in the near future. To cope with the coming elderly problem, social welfare services and elderly housing need to be carefully prepared. Especially, elderly housing has been recognized to be promising to solve the great portion of the problem.

Therefore, I try, in this study, to show the theoretical bases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households, and to survey and analyz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onsciousness of them in rural area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be a reference to the housing planning for the elderly household in rural areas.

키워드 : 농촌지역,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Keywords : Rural Areas, Elderly Households, Residential Environment

1. 序 論

농촌지역인구의 과소화·고령화 현상은 지금까지 농촌을 유지해온 전통적 조직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경제 및 교통·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와 의식수준의 향상은 생활환경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분가나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형성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을 고려해 볼 때 노인단독가구의 생활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이들을 위한 생활환경 중 주거환경의 개선은 매우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시설계획적 측면에서의 연구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무의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인주거 관련 정책이나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노인주거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고조된 것은 199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일부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을 겨냥한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다양한 경제생활 계층을 기반으로 한 노인주택산업은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노인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도 정부의

* 정희원, 호남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1999년도 호남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²⁾내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 및 의식구조를 조사, 분석하여 전반적인 문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급후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 계획시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는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³⁾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이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제반 요소 중 주택특성, 소요실별 문제점,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인지도, 주거만족도, 개선의지 및 개선희망부분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하였다. 노인단독가구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되고 있어⁴⁾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를 차용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통계자료조사, 실태조사 등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되, 본 연구의 성격상 주로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2. 理論的 考察

2.1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추세

한국에 있어서 노년인구의 수와 비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인 노년인구비율은 1980년에 3.8%이었던 것이 2000년 말에는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계

속된다면 2020년에는 1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1990년도를 전후하여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12~15%를 차지하고 있으며⁵⁾, 일본도 1995년 현재 이미 14%를 넘어선 상태이다⁶⁾.

표 1. 노년인구의 연도별 증가 추세 (단위: 천인)

구 분 \ 년 도		1980	1990	2000	2010	2020
		전국	1,456	2,195	3,371	5,032
65세이상(A)		1,456	2,195	3,371	5,032	6,899
총인구(B)		38,124	42,869	47,275	50,618	52,358
A/B (%)		3.8	5.1	7.1	9.9	13.2
평균수명		65.8	71.3	74.3	75.6	77.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노년인구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비율이 1980년에 4.8%, 1985년에 7.8%, 1990년에 9.3%, 1995년에 12.6%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각각 7.0%, 10.1%, 14.8%, 23.1%로 나타나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의 변화추이

구 분 \ 년 도		1975	1980	1985	1990	1995
		농촌(읍, 면부)	4.8	7.0	10.1	14.8
도시(시부)		5.2	6.0	6.6	7.4	9.6
전국(단위: %)		5.0	6.5	7.8	9.3	12.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

2.2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 이인수, 노인주거와 실버산업(서울:하우,1997), p.12.
- 김정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인주택 육성 필요성 및 육성방안”,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서울: 경춘사, 1993), p.84.

- 김익기 외5, 한국노인의 삶(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p.50.
- 농촌지역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군부의 지역으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 주거환경이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체계의 한 단위로서, 협의적으로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주택 그 자체로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택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p.2.

주거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 보다도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노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통제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행동에 위축현상이 나타나므로(7)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노후생활에서 주거환경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고 그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주거환경은 노인들이 요구하는 제반 조건과 각자의 주거생활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즉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 문화환경, 교육수준, 경험과 노화과정 등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8).

노인주택의 필요성은 1950년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고령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n Aging)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노인주택이 실제로 건설된 것은 1959년 주택법이 제정된 이후의 일이다. 노인복지수준이 비교적 높은 미국은 1965년 주택도시개발성(HUD)의 발족과 함께 노인주택정책이 공식적으로 출발하였으며, 1978년에야 노인주택정책에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9). 1980년 HUD가 정한 시행령에 의하면 노인전용주거시설을 건설할 경우 노인의 건강수준과 신체기능을 정확히 측정하여 건축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

으며(10), 구체적인 지침은 표준연구소(ANSI)에서 정한 노약자용 건물과 시설에 관한 규칙 및 HUD에서 정한 몇 가지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주택정책의 기본을 노인이 그 동안 생활하여 왔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환경의 특성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도로 및 교통의 편리성, 주택의 소유, 소음공해로부터의 안전성, 좋은 이웃과의 근접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연령, 학력 및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주거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므로 주거환경은 노인의 주생활문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住居環境 實態 및 意識構造 分析

3.1 조사 개요

조사대상지역으로는 우리 나라의 주요 농촌지역인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되는 장성군, 나주군, 함평군, 화순군 및 담양군 등 5개 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12월에 1차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결과를 보완하여 2000년 2월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

7) 이경희 외1, “노인의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인 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1호(1998), p.28.
 8) 신영숙,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2호(1998), p.107.
 9) 조계순 외3, “미국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 동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10호(1995.10), p.17.

10) 이인수, 전게서, pp.154-155.
 11) 심영 외3, “노인복지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1996), p.4.

며, 보다 정확하고 일반성 있게 해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60세 이상 노인단독가구의 세대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대인면접법을 선택하였으며, 총 조사대상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5명의 유효매수(유효율 82.0%)를 얻었다.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분석에는 단순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을 통한 Chi-Square검증이 이용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 결과치는 주로 유의수준이 낮거나, 통계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분석된 자료의 해석과정에 있어서 각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측치를 처리한 관계로 전체 표집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4.9%, 여자 55.1%였으며, 노후생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¹²⁾인 연령은 64세 이하 21.5%, 65 ~ 69세 25.4%, 70 ~ 74세 21.0%, 75세 이상 32.2%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인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가 응답자 전체의 79.5%, 중졸 10.2%, 고졸 이상은 10.2%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58.0%, 소유재산 또한 5천만원 이하가 75.0%로 나타나 경제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직업은 70.7%가 농업이었고 그나마 현재는 33.7%만이 직업을 갖고 있어 이들의 주된 소득원은 자녀 보조 55.6%이고, 근로소득은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된 수입원의 반 정도가 자녀로부터의 도움이나 근로소득인데 반해 일본 노인의 경우는 절반 정

도가 퇴직금이나 연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¹³⁾ 아직도 우리 나라의 복지제도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의 부양유형을 결정할 때 일종의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인 건강상태는 전체 노인의 22.0%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이는 또한 노후생활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6%가 건강문제를 우선 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	비율
성 별	남	92	44.9
	녀	113	55.1
연 령	64세 이하	44	21.5
	65 ~ 69세	52	25.4
	70 ~ 74세	43	21.0
	75세 이상	66	32.2
학 령	초졸 이하	163	79.5
	중 졸	21	10.2
	고졸 이상	21	10.2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105	58.0
	51 ~ 100만원	43	23.8
	101 ~ 150만원	20	11.0
	151 ~ 200만원	13	7.2
	201만원 이상	-	-
소 재 유 산	5천만원 이하	126	75.0
	5천 ~ 1억원	27	16.1
	1 ~ 1.5억원	12	7.1
	1.5억 이상	3	1.8
과 직 거 업	농업	145	70.7
	농상업	16	7.8
	공무원 및 교원	14	6.8
	자유업(의사, 변호사)	25	12.2
	주부(무직) 기타	5	2.5
현 재 직 업	있 다	69	33.7
	없 다	136	66.3
주 된 소 득 원	근로 소득	50	24.6
	재산 소득	23	11.3
	연금	8	3.9
	자녀의 보조	114	56.2
	공적 보조(정부, 공공단체)	8	3.9
건 상 강 태	건강하다	45	22.0
	보통이다	81	39.5
	나쁘다	79	38.5
노 후 생 활 의 문제점	건강 문제	156	77.6
	생계비 문제	29	14.4
	기 타	16	8.0
생 활 만 족 도	만 족	41	20.4
	보 통	126	62.7
	불 만	34	16.9

12) 이경희외5.,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10호 (1998), p.6.

13) 이인수, 전게서, p.27.

3.3 주거환경 실태 분석

(1) 주택특성

주택의 소유형태는 <표 4>에서와 같이 자가인 경우가 94.6%, 임차(전세, 월세)인 경우가 3.9%, 기타 1.5%로 이는 우리 나라 주거생활주기에서 볼 때 노인기에는 대부분의 가족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주택형은 단독주택 95.6%, 공동주택 4.4%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⁴⁾.

1주택당 가구수는 주로 1가구로 나타났으나, 2가구 이상인 경우도 15.6%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당 평균 가구수도 1.22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방의 수는 3개인 경우가 40.5%, 2개 35.1%, 4개 이상 16.6%로 나타나 대부분이 2~3개, 평균 2.66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거수준은 2~3인 가족의 최저수준이 방 2개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양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주거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주택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비 율
소유형태	자가	194	94.6
	임차(전, 월세)	8	3.9
	기타	3	1.5
주택형	단독주택	196	95.6
	공동주택	9	4.4
1 주택당 가구 수	1 가구	173	84.4
	2 가구	21	10.2
	3 가구 이상	11	5.4
사용하는 방 의 수	1 개	16	7.8
	2 개	72	35.1
	3 개	83	40.5
	그 이상	34	16.6
건축 연 한	5년 미만	14	6.8
	5 ~ 10년	20	9.8
	10 ~ 15년	4	2.0
	15 ~ 20년	36	17.6
	20년 이상	131	63.9
욕실설비	온수 공급	150	73.2
	냉수만 공급	27	13.2
	없다	28	13.7

14)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형에 대한 조사에서도 단독주택비율이 94.4%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분포임(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1995).

건축년수는 20년 이상 63.9%, 15~20년 17.6%로 나타나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전체의 81.5%로 나타나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주택에서 살아온 기간도 20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도시지역 노인단독가구¹⁵⁾에 비해 현재의 주택에서 더 오랜 기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설비로는 욕실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거나 욕실이 없는 경우도 26.9%로 나타나 주택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5. 관련 변인별 주택의 규모 (단위:%)

주택규모		1	2	3	4	5	6
학 력	초졸 이하	66.6	97.0	92.0	92.3	57.6	66.0
	중 졸	-	2.9	6.0	7.7	30.3	11.4
	고졸 이상	33.3	-	2.0	-	12.1	22.7
		$\chi^2 = 56.15051$		d.f. 15		p<0.000	
월 평 균 소득	50만원 이하	80.0	81.5	90.9	38.5	29.0	31.6
	51~100만원	-	3.7	-	46.2	45.2	42.1
	101~150만원	-	14.8	-	11.5	25.8	13.2
	151만원 이상	20.0	-	9.1	3.8	-	13.2
		$\chi^2 = 89.50320$		d.f. 20		p<0.000	
소 유 재 산	5천만원이하	83.3	82.6	76.9	65.2	69.0	75.0
	5천~1억원	-	17.4	23.1	21.7	20.7	8.3
	1~1.5억원	16.7	-	-	13.0	-	16.7
	1.5억원이상	-	-	-	-	10.3	-
		$\chi^2 = 48.52188$		d.f. 20		p<0.000	
총 계 (%)		8.8	16.6	24.4	12.7	16.1	21.5

*주) 1. 14평 이하 2. 15 ~ 19평 3. 20 ~ 24평
4. 25 ~ 29평 5. 30 ~ 34평 6. 35평 이상

주택의 규모는 20~24평이 전체의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5평 이상(21.5%), 15~19평(16.6%), 30~34평(16.1%), 25~29평(12.7%), 14평 이하(8.8%)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볼 때 25.5평의 주택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규모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학력, 월평균 소득, 소유재산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거나 월평균 소득과 소유재산

15) 도시지역조사에서는 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최명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9호(2000.9), p.32.)

이 많을수록 규모가 큰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소요실별 문제점

실별 주된 문제점으로는 침실의 경우는 벽체의 단열성능이나 차음성능이 떨어져 겨울철에 춥거나, 여름철에 덥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24.6%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이 어둡다(19.9%), 실이 좁다(18.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시끄럽다고 응답한 경우는 1가구(0.5%)에 지나지 않아 소음과 같은 사항은 아직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장실의 경우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실이 어둡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엌의 경우는 작업대가 불편하거나 실이 어둡거나 좁다고 응답한 비율이 실의 환기가 잘 안되거나 동선이 길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노인단독가구의 주거규모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4 의식구조 분석

(1)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인지도

기존의 주거환경실태에 대한 현 수준을 조사, 분석한 결과판으로 구체적인 주거수준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실제로 주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주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느끼고 있는 정도 즉 인지도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주거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지도를 10개 항목에 걸쳐 조사, 분석하였다.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각 항목에 걸쳐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문제가 매우 많다, 약간 있다, 그저 그렇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는 순으로 각각 1~5점까지의 값을 주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인지 정도를 산정하였다. 평가 결과 낮은 수치를 보이는 항목이 문제가 많다고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지칭하고 있으나, 대체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 항목도 평균값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분석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시장, 병원 등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상 불편, 주택내부의 낮은 설비수준, 비상시 긴급 연락시설 불비 등은 5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각각 1.976, 2.683, 2.70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사용상 문제점

변 인	구 분	빈 도	비 율
침 실	바닥이 미끄럽다	45	23.4
	어둡다	45	23.4
	실이 좁다	14	7.3
	환기가 잘 안된다	26	13.5
	기타	62	32.3
부 엷	수납공간이 부족	27	13.2
	어둡다	34	16.6
	실이 좁다	34	16.6
	환기가 잘 안된다	21	10.2
	작업대가 불편	52	25.4
	동선이 길다	10	4.9
	기타	27	13.2

표 7. 주거문제에 대한 인지도

항 목	평균값	표준편차
1) 시장 등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문제	1.976	1.246
2) 주택내부의 설비수준의 문제	2.683	1.209
3) 비상시 긴급연락시설이 없는 것	2.702	1.277
4) 방문에 설치된 문턱	3.059	1.251
5)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	3.093	1.203
6) 주택 내외부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	3.112	1.147
7) 불박이장과 같은 수납공간의 부족	3.137	1.221
8) 방이나 욕실의 바닥이 미끄럽다	3.249	1.318
9) 사생활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	3.766	1.273
10) 주변의 소음이나 공기오염문제	4.210	0.918

주거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면 <표 8>~<표 10>과 같다.

먼저 공공시설의 이용상 불편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19.0%에 불과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소유 재산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월평균 소득이나 소유재산이 적은 계층일수록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공공시설의 이용불편에 대한 인지도

변인		인지도					전체
		1	2	3	4	5	
연령	64세 이하	24.0	8.0	25.0	23.3	55.6	21.5
	65~69세	14.4	36.0	25.0	46.7	22.2	25.4
	70~74세	30.8	20.0	-	-	11.1	21.0
	75세 이상	30.8	36.0	50.0	30.0	11.1	32.2
	$\chi^2=38.84205$ d.f. 12 p<0.000						
학력	초졸 이하	78.8	94.0	100.0	66.7	22.2	79.5
	중졸	12.5	2.0	-	10.0	44.4	10.2
	고졸 이상	8.7	4.0	-	23.3	33.3	10.2
$\chi^2=47.35751$ d.f. 12 p<0.000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61.7	55.8	66.7	40.7	75.0	58.0
	51~100만원	23.4	18.6	-	44.4	12.5	23.8
	101~150만원	9.6	25.6	-	-	-	11.0
	151만원 이상	5.3	-	33.3	14.8	12.5	7.2
	$\chi^2=38.95738$ d.f. 16 p<0.001						
소유 재산	5천만원 이하	68.8	96.9	100.0	60.0	77.8	75.0
	5천~1억원	21.5	3.1	-	24.0	-	16.1
	1~1.5억원	6.5	-	-	16.0	22.2	7.1
	1.5억원 이상	3.2	-	-	-	-	1.8
$\chi^2=40.50863$ d.f. 16 p<0.001							
총 계 (%)		50.7	24.4	5.9	14.6	4.4	100.0

*주) 1.문제가 매우 많다 2.약간 있다 3.그저 그렇다
4.거의 없다 5.문제가 전혀 없다

표 9. 주택내부의 낮은 설비수준에 대한 인지도

변인		인지도					전체
		1	2	3	4	5	
학력	초졸 이하	75.0	86.5	72.7	88.9	80.0	79.5
	중졸	10.0	13.5	10.6	-	15.0	10.2
	고졸 이상	15.0	-	16.7	11.1	5.0	10.2
$\chi^2=42.21043$ d.f. 12 p<0.000							
주된 소득원	근로 소득	17.5	18.0	37.9	22.2	15.0	24.6
	재산 소득	2.5	26.0	9.1	11.1	-	11.3
	연금	10.0	-	3.0	7.4	-	3.9
	자녀의 부조	60.0	52.0	47.0	59.3	85.0	56.2
공적 부조	10.0	4.0	3.0	-	-	3.9	
	$\chi^2=39.47223$ d.f. 16 p<0.001						
소유 재산	5천만원 이하	79.5	78.0	72.3	81.0	60.0	75.0
	5천~1억원	12.8	14.6	14.9	19.0	25.0	16.1
	1~1.5억원	7.7	-	12.8	-	15.0	7.1
	1.5억원 이상	-	7.3	-	-	-	1.8
$\chi^2=36.78179$ d.f. 16 p<0.005							
총 계 (%)		19.5	25.4	32.2	13.2	9.8	100.0

*주) 1.문제가 매우 많다 2.약간 있다 3.그저 그렇다
4.거의 없다 5.문제가 전혀 없다

표 10. 긴급 연락시설 불비에 대한 인지도

변인		인지도					전체
		1	2	3	4	5	
연령	64세 이하	16.7	21.7	18.8	32.0	13.3	21.5
	65~69세	20.8	28.3	37.5	32.0	3.3	25.4
	70~74세	25.0	20.7	28.1	-	30.0	21.0
	75세 이상	37.5	29.3	15.6	36.0	53.3	32.2
	$\chi^2=33.26110$ d.f. 15 p<0.005						
건강 상태	건강하다	25.0	18.5	25.0	16.0	26.7	22.0
	보통이다	12.5	41.3	56.3	28.0	50.0	39.5
	나쁘다	62.5	40.2	18.8	56.0	23.3	38.5
$\chi^2=27.68295$ d.f. 10 p<0.005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47.6	69.4	34.6	56.5	56.0	58.0
	51~100만원	33.3	22.4	30.8	13.0	24.0	23.8
	101~150만원	9.5	-	34.6	21.7	16.0	11.0
	151만원 이상	9.5	8.2	-	4.3	4.0	7.2
$\chi^2=67.96248$ d.f. 20 p<0.000							
주된 소득원	근로 소득	4.2	28.3	37.5	30.4	13.3	24.6
	재산 소득	4.2	14.1	-	17.4	10.0	11.3
	연금	8.3	2.2	-	-	13.3	3.9
	자녀의 부조	70.8	53.3	62.5	52.2	53.3	56.2
공적 부조	12.5	2.2	-	-	10.0	3.9	
	$\chi^2=52.72206$ d.f. 20 p<0.000						
소유 재산	5천만원 이하	85.0	79.7	55.0	95.0	55.2	75.0
	5천~1억원	15.0	11.4	45.0	-	20.7	16.1
	1~1.5억원	-	8.9	-	5.0	13.8	7.1
	1.5억원 이상	-	-	-	-	10.3	1.8
$\chi^2=61.17631$ d.f. 20 p<0.000							
총 계 (%)		11.8	45.3	15.8	12.3	14.8	100.0

*주) 1.문제가 매우 많다 2.약간 있다 3.그저 그렇다
4.거의 없다 5.문제가 전혀 없다

주택내부의 낮은 설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3.0%에 불과해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학력, 주된 소득원, 소유재산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력이 높거나 소유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된 소득원이 공적부조(정부, 공공단체의 보조금)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상시 긴급 연락시설의 불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매우 많거나 약간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7.1%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단독가구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주된 소득원, 소유재산 등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거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일수록, 주된 소득원이 자녀의 부조나 공적 부조와 같이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노인주거환경을 계획하거나 개선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 만족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단독가구의 26.8%가 만족, 19.5%가 불만족, 53.7%는 그저 그렇다로 나타나 현 주택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연령, 건강상태, 주된 소득원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유형태, 주거규모, 건축년한, 욕실설비 등 주거특성적 변인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들은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거계획의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적을수록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재산이 많을수록 주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유형태별로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욕실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주택, 건축년한이 오래된 주택 등에 거주하는 노인의 불만족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불만족시 주된 이유로는 주택이 노후해서가 전체의 47.9%로 가장 높게, 그 다음에는 사용상 불편(30.2%), 기타(12.5%), 주택규모의 협소(9.4%)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화되었거나 사용상 불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지역 노인단독가구¹⁶⁾에 대한 조사에서 주택규모의 협소(24.1%)가 사용상 불편(16.6%)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이한 점으

표 11. 주거만족도 (단위: %)

변 인		만 족	보 통	불만족	소 계
연 령	64세 이하	18.2	25.5	15.0	21.5
	65~69세	16.4	36.4	7.5	25.4
	70~74세	18.2	17.3	35.0	21.0
	75세 이상	47.3	20.9	42.5	32.2
	$\chi^2 = 28.13583$ d.f. 6		p<0.000		
건 장 태	건강하다	32.7	19.1	15.0	22.0
	보통이다	27.3	52.7	20.0	39.5
	나쁘다	40.0	28.2	65.0	38.5
$\chi^2 = 25.36153$ d.f. 4		p<0.000			
주 된 소득원	근로 소득	15.1	32.7	15.0	24.6
	재산 소득	13.2	14.5	-	11.3
	연금	-	5.5	5.0	3.9
	자녀의 부조 공적 부조	71.7	45.5	65.0	56.2
$\chi^2 = 35.77358$ d.f. 8		p<0.000			
소 형 유 태	자가 임차(전월세)	1000	95.5	85.0	94.6
	기타	-	4.5	7.5	3.9
$\chi^2 = 16.53197$ d.f. 4		p<0.005			
주 거 규모	14평 이하	3.6	5.5	25.0	8.8
	15~19	12.7	15.5	25.0	16.6
	20~24	16.4	30.0	20.0	24.4
	25~29	18.2	14.5	-	12.7
	30~34	12.7	20.9	7.5	16.1
	35평 이상	36.4	13.6	22.5	21.5
$\chi^2 = 39.84310$ d.f. 10		p<0.000			
건 축 년 한	5년 미만	20.0	2.7	-	6.8
	5~10년	14.5	9.1	5.00	9.8
	10~15년	1.8	1.8	2.5	2.0
	15~20년	16.4	21.8	7.5	17.6
	20년 이상	47.3	64.5	85.0	63.9
$\chi^2 = 30.41878$ d.f. 8		p<0.000			
욕 실 설 비	온냉수공급	96.4	70.0	50.0	73.2
	냉수만 공급	1.8	20.9	7.5	13.2
	욕실 없음	1.8	9.1	42.5	13.7
$\chi^2 = 50.17552$ d.f. 4		p<0.000			
총 계 (%)		26.8	53.7	19.5	100.0

로서 농촌지역내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의 주택 수준이 양적 수준에서는 도시지역보다 다소 나으나,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학력, 가구주의 건강상태, 주된 소득원, 소유형태, 주거규모, 1주택당 가구수, 건축년한 등의 변인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의 계층은 주택의 노후화를, 중졸의 계층에서는 사용상의 불편을, 고졸 이상의 계층에서는 주택규모의 협소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은 주거규모의 협소를, 건강이 나쁘

16) 최명규, 전계논문, p.36.

표 12.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단위:%)

이유		1	2	3	4	전체
연령	64세 이하	-	15.2	20.7	8.3	14.6
	65~69세	-	19.6	17.2	41.7	19.8
	70~74세	77.8	28.3	17.2	25.0	29.2
	75세 이상	22.2	37.0	44.8	25.0	36.5
	$\chi^2 = 32.25232$ d.f. 12 p<0.001					
건강상태	건강하다	-	21.7	6.91	8.3	13.5
	보통이다	77.8	39.1	20.7	16.7	34.4
	나쁘다	22.2	39.1	72.4	75.0	52.1
$\chi^2 = 34.22449$ d.f. 8 p<0.000						
주된소득원	근로 소득	-	27.3	31.0	8.3	23.4
	재산 소득	-	6.8	3.4	-	4.3
	연금	22.2	4.5	-	16.7	6.3
	자녀의 부조	55.6	59.1	48.3	75.0	57.4
	공적 부조	22.2	2.3	17.2	-	8.5
$\chi^2 = 54.38389$ d.f. 16 p<0.0000						
소유형태	자가 임차(전월세)	100.0	91.3	89.7	75.0	89.6
	기타	-	2.2	10.3	25.0	7.3
	기타	-	6.5	-	-	3.1
$\chi^2 = 31.20706$ d.f. 8 p<0.000						
주거규모	14평 이하	22.2	-	27.6	-	10.4
	15~19	-	21.7	31.0	25.0	22.9
	20~24	44.4	19.6	13.8	25.0	20.8
	25~29	-	10.9	-	25.0	8.3
	30~34	33.3	26.1	3.4	-	16.7
	35평 이상	-	21.7	24.1	25.0	20.8
$\chi^2 = 50.11193$ d.f. 20 p<0.001						
주택가구수	1 가구	66.7	93.5	69.0	75.0	81.3
	2 가구	-	4.3	17.2	25.0	10.4
	3 가구	33.3	2.2	13.8	-	8.3
	$\chi^2 = 32.13835$ d.f. 12 p<0.001					
건축년한	5년 미만	-	-	-	16.7	2.1
	5~10년	-	-	10.3	-	3.1
	10~15년	-	4.3	-	8.3	3.1
	15~20년	33.3	4.3	31.0	25.0	17.7
	20년 이상	66.7	91.3	58.6	50.0	74.0
$\chi^2 = 40.21967$ d.f. 12 p<0.0001						
총 계 (%)		9.4	47.9	30.2	12.5	100.0

*주) 1.주택규모가 적어서 2.주택이 노후화 되어서
3.사용하기 불편해서 4.기타

다고 느끼는 노인은 사용상의 불편을 불만족 요인으로 들고 있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노후를, 10~15년인 경우는 사용상의 불편을, 5년 미만인 경우는 주택규모의 협소나 기타의 요인을 불만족 요인으로 들고 있다.

(3) 주거환경 중 개선희망 부분

주거환경의 개선의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3%만이 개선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희망 부분을 조사한 결과, 화장실(욕실)의 개조가 전체의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의 노후부분 수리 22.4%, 부엌의 개조 10.2%, 난방 및 온수시설의 개선 9.8%, 가구나 커튼의 구입 6.3%, 도배 및 장판 교체 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희망 부분이 노후부분의 수리나 화장실(욕실) 및 부엌의 개조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이 가구나 커튼 구입 등을 아직은 고려하지 못할 만큼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는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주된 소득원, 소유재산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관련 변인별 주거환경 중 개선희망 부분

개선부분		1	2	3	4	5	6
연령	64세 이하	-	34.8	22.9	14.3	15.4	9.1
	65~69세	35.0	15.2	27.1	33.3	23.1	27.3
	70~74세	15.0	30.4	18.8	4.8	15.4	54.5
	75세 이상	50.0	19.6	31.3	47.6	46.2	9.1
	$\chi^2 = 75.05810$ d.f. 24 p<0.000						
학력	초졸 이하	90.0	80.5	68.7	95.2	100.	81.8
	중졸	10.0	6.5	6.3	4.8	-	9.1
	고졸 이상	-	13.0	25.0	-	-	9.1
$\chi^2 = 57.71196$ d.f. 24 p<0.000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	78.9	55.6	52.6	71.4	40.0	63.6
	51~100만원	21.1	28.9	26.3	9.5	30.0	9.1
	101~150만원	-	2.2	10.5	9.5	20.0	27.3
	151만원 이상	-	13.3	10.5	9.5	10.0	-
$\chi^2 = 80.29544$ d.f. 32 p<0.000							
주된소득원	근로 소득	15.0	31.8	33.3	4.8	46.2	9.1
	재산 소득	5.0	15.9	6.3	14.3	7.7	-
	연금	-	4.5	4.2	19.0	-	-
	자녀의 부조	75.0	47.7	54.2	61.9	30.8	72.7
	공적 부조	5.0	-	2.1	-	15.4	18.2
$\chi^2 = 114.68089$ d.f. 32 p<0.000							
소유재산	5천만원 이하	83.3	65.9	85.7	100.	50.0	100.
	5천~1억원	16.7	22.0	2.9	-	50.0	-
	1~1.5억원	-	12.2	11.4	-	-	-
	1.5억원 이상	-	-	-	-	-	-
$\chi^2 = 87.70843$ d.f. 32 p<0.000							
총 계 (%)		9.8	22.4	23.4	10.2	6.3	5.4

*주) 1. 난방, 온수시설 2. 주택 노후부분 3. 화장실 개조
4. 부엌 개조 5. 가구, 커튼 구입 6. 도배, 장판

4. 結論

농촌지역내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주택 특성, 주거 인지도 및 주거 만족도 측면에서 이들의 주거환경실태를 조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대부분 자가로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주택규모는 평균 25.5평, 1주택당 평균 가구수는 1.22가구이며, 평균 방수는 2.66개로 나타나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주거수준은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2)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년수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대부분이며, 소요설비 문제점도 구조나 설비측면에 대해 보다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3)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공공시설의 이용불편, 주택내부의 낮은 설비수준, 비상시 긴급 연락시설의 불비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지의 차이 또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노인주거환경을 계획하거나 개선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주거환경에 대해 큰 불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유형태, 주거규모, 건축년한, 욕실설비 등 주거특성적 변인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들은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거계획의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환경 중 개선희망 부분이 노후부분의 수리나 화장실(욕실) 및 부엌의 개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내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이러한 측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농촌지역내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2. 김정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인주택 육성의 필요성 및 육성방안”,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서울: 경춘사, 1993.
3. 신영숙,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2호, 1998, pp.107
4. 심영 외, “노인복지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1996), pp.1-19.
5.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6. 이인수, 노인주거와 실버산업, 서울: 하우, 1997.
7. 이경희 외,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3호, 1997, pp.151-169
8. 이경희 외, “노인의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인지”, 대한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1호, 1998, pp. 151-169
9. 조재순 외. “미국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 경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10호(1995,10), pp.19-27.
10. 최명규 외, 전남지역 실버타운 모델화에 관한 연구, 1994.
11. 최명규, “실버피아(고령자 집단주택)건설을 위한 개발사례 및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시정연구논총(제5호), 광주광역시, 1996.
12. 최명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거대책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논문집(제6호), 호남대 산업기술연구소, 1998.
13. 최명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제9호, 2000.9.
1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